

민주당 원외 인사들, 비명계 현역의원 지역구에 도전장

정봉주→박용진, 양문석→전해철, 김우영→강병원 의원 지역구
지도부 “시스템 공천 체계 갖춰져 불공정 불가” 자객 공천 논란 일축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인사들이 앞다퉈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친명계 정봉주 전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총선에서 서울 강북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인 정 전 의원이 도전하는 곳은 비명계 박용진(재선) 의원의 지역구다.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전남 경기 안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어 경기 안산상록갑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산상록갑은 비명계인 전해철 의원이 19대부터 내리 3선을 한 곳이다.

양 전 의원은 지난해 전 의원을 향해 ‘수박’이라는 비난 발언을 했다가 ‘당직 자객 정치 3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다.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민주당 강성 당원들이 비명계 의원들에게 사용하는 별칭이다.

친명계 김우영 강령도당위원장은 비명계인 강병원 의원 지역구(서울 은평구)에 도전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은평구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초 강령도가 아닌 서울에 출마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김 위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으나 김 위원장은 은평을 출마 의지를 접지 않았다.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경기 동탄을)·윤영찬(경기 성남중원) 의원 지역구에는 친명계 인사인 진석범 2동탄복지포럼 대표와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고 표발같이 나섰다.

친명계 인사들의 ‘비명 지역구’ 출마 선언이 잇따르자 비명계에선 ‘자객 공천’을 통한 ‘비명 속아내기’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표 시절 당 통합을 위해 대표직을 버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 친명계 핵심이었던 이해찬 의원, 정청래 의원 등의 공천이 배제됐다”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사퇴 후 통합 비상대책위원회의 ‘통합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반면, 당 지도부를 비롯한 친명계는 ‘자객 공천’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

‘시스템 공천’ 체계가 갖춰져 있는 만큼 불공정한 공천은 없다는 게 당 지도부의 입장이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총선에서는 원래 현역과 원외 도전자가 경쟁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야권의 (대선 주자) 지지율 선두는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이 대표와의 인연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영입인재 환영식에서 황정아(오른쪽 세번째)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에 접지를 입혀주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6호 인재’ 우주과학 황정아 박사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과학기술 후퇴 막겠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황정아(47)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영입했다.

여수 출신의 황 책임연구원은 전남과학고를 나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학부와 석·박사를 마쳤다. 과학기술위성 1호인 우리별 4호 탑재체 제작, 누리호 탑재 도요셋(초소형 위성) 개발 주도, 우리나라 첫 정찰위성인 425 위성사업 자문

위원 참여 등의 경력을 갖고 있다. 드라마 ‘카이스트’ 주인공의 실제 모델로 알려져 있다.

황 책임연구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영입 행사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과학자, 연구자들이 겪고 있는 무력감, 자괴감을 뼈저리게 느끼며 더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후퇴하게 둘 수 없다는 위기감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우주항공에 대한 물이해와 푸대접 때문”이라며 “연구개발(R&D) 카르텔 논란은 말하는 것조차 참담하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붕괴되기 직전”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한국은 누리호 성공으로 7대 우주강국 반열에 들었으나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소위 과학계 카르텔 등으로 해서 R&D 예산이 대폭 줄어드는 참사가 일어났다”며 “민주당은 과학기술 개발 예산 지원 확대는 물론 대한민국 현장 과학자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에 앞장서겠다. 그래서 제2, 제3의 황정아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이재명 피습범 신상 공개 여부 오늘 결정

부산경찰, 당적 공개 않기로...공범·조력 가능성 낮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67)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된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 회를 개최하고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할 예정이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

경찰은 애초 피의자 당적과 관련해서는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경찰과 여지를 협의하려 했다. 하지만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최종 수사 발표 때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정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범행 전날 충남 아산에서

출발해 부산역, 경남 봉하마을, 평산마을, 울산역, 부산역, 부산 가덕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로 기차,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했지만 두 차례 승용차를 얻어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승용차를 얻어타던 구간은 봉하마을에서 평산마을까지, 가덕도 범행 현장에서 10여km 떨어진 창원 용원의 한 모텔까지다.

경찰은 김씨를 차로 태워준 차주와 동선상에서 만난 인물들을 모두 참고인 조사했으나 현재까지 공범 또는 조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는 사전에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속속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4월께 인터넷으로 흉기를 구입했으며 범행이 용이하도록 손잡이를 빼서 테이프를 감고 칼날을 날카롭게 간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피의자 추가 조사, 프로파일러 심리·진술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각종 증거물 등을 토대로 11일 김씨 구속 만기 이전에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태원 특별법’ 오늘 본회의 통과되나

김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특조위’ 설치 공감 세부내용엔 이견

여야 원내대표가 8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둘러싼 추가 협상을 통해 쟁점 사항을 놓고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9일 본회의를 앞두고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회의원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시내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김 의장의 중재안을 놓고 조율을 시도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의장의 중재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여당이 반대하는 특별 조항을 빼고 법 시행 시기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내용이다.

국회의원은 ‘특조위 절대 불가’ 입장을 바꿔 특

조위를 수용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에 물꼬가 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는 특조위를 설치하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특조위의 지위와 운영 방향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특조위 설치를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수용 가능하다. 그러나 특조위 설치 관련 문안이 여러 개이다 보니 그 부분에서 일부 이견이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일 본회의까지 추가적인 협상을 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 “다시말까지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당,尹 ‘쌍특검 거부권’

권한쟁의심판 법리 검토 착수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른바 ‘쌍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법리 검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홍익표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울산 출신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헌법학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저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당이 법리 검토에 착수했지만, 선례가 없었던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을 재의결해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문지점 062)513-8521~3	동문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